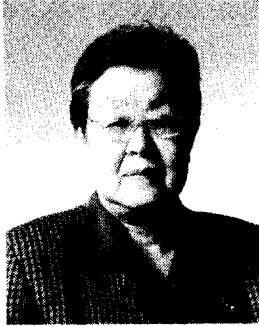


윤서석(尹瑞石) 선생님



이번호에는 가정학의 선구자 윤서석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1923년 1월 6일 아버지 윤하용(尹夏鏞)선생님과 어머니 임치순(任致淳)여사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서울에서 성장하신 서울토박이시다.

서울에서 수송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경기여고에 입학하셔서 1939년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곧바로 일본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현재 오차노미즈여대) 가사과에 입학하여 1942년 졸업하시고 1973년 중앙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일본유학시절에도 한국여성의 자부심과 기상을 잊지 않았으며, 옥색저고리, 과란 뉴튼치마를 입으시고 긴자(銀坐) 거리를 지나며 한복의미를 과시하였던 모습을 마침 국문학자이신 김동욱(金東旭)박사님께 깊은 인상을 남기셔서 선생님의 정년퇴직 기념 논총에 헌사까지 써 주셨다.

귀국후 모교인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다. 1953년 명지대학(당시 문리사범대학) 가정과 교수로 계시면서 이때부터 가정학 발전에 큰 기여가 시작되었다. 1957년에는 문교부 장관령 중·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심의위원이셨고 1959~1962년까지는 문교부 장관령 가정과 담당 장학위원이셨다. 1969~1971년까지는 문교부 장관령 대학입시자격 예비고사 가정과 출제위원이셨다.

1961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선생님께서는 교육 행정적인면에서도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셔서 1973~1979년까지 사범대학 학장직을 지내셨고, 그 사이에 전국 사범대학장 협의회장직을 역임하시기도 하셨다. 안성 제2캠퍼스에 가정대학을 창설하시어 1982~1986년까지 가정대학장직을 역임하시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학구적인 분위기와 학생지도에 크나큰 업적을 남기셨다. 그 사이에 전국 가정대학장 협의회장직을 역임하시면서 전국 가정대학간에 정보교류와 가정대학 발전에 힘쓰셨다. 1974~1979년까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이사를 지내시고, 1978~1982년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지내셨다. 또한 한국군인급식제조위원으로 위촉받고 군인의 표준급식을 만들어 보급시키셨으며 월남파병군인들을 위한 우리나라 C ration을 이순애·현순영·현기순 교수님과 함께 하셨다.

대한가정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하실때는 미국가정학회의 후원으로 가족계획 workshop을 1차·2차 개최하셨고 이 workshop을 계기로 각 지방의 지회활동을 활성화 시키셨다. 또한 회장임기 중 대한가정학회를 사단법인체로 등록시키시기도 하셔서 사단법인 대한가정학회가 50주년을 맞는데 큰 기여를 하시는 밑거름이 되었다.

임기 중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미래의 가정학”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선생님께서는 가정학은 언제나 현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신하고 적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하셨다. 그 당시 70년대초에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가정학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방향을 전망해보는 등 가정학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선구자적인 혜안을 갖고 계셨다. 가정학이 점점 세분화·전문화되면서 1984년 한국조리과학회가 발족되면서 초대회장으로서 한국조리과학회 발전에 기여하시고 자리를 공고히 해주셨다. 1986년에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장을 역임하셨다.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를 창설하시고 초대 소장을 역임하시면서 가정문화는 사회문화의 저변을 이루고 가정문화의 격조와 향배는 사회문화, 민족문화, 인류문화의 격조를 가늠하는 기준적 요소이므로 가정학 연구업적이 가정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속한 집단의 안녕을 이룩할 수 있다고도 하셨다.

1988년 정년퇴임 후에도 계속 가정학에 대한 왕성한 학구열과 후학교육에 쏟는 정열로, 대우재단 학술모임인 “韓·中·日 음식비교 연구회”를 창설하셔서 한달에 한번씩 학술모임을 계속하시면서 후학들을 이끄시고 독회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를 「제민요술」, 「중국음식문화사」, 「일본음식문화사」 등의 번역서를 출판하시기도 하시고 「韓國의 食文化史」의 日語版을 일본에서 출판하시기도 하셨다. 선생님의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애정과 집념은 한 평생의 연구로 이어져 「가정학개론」, 「한국요리」, 「한국식품사 연구」, 「한국음식(역사와 조리)」, 「한국의 전래생활」, 「음식용어사전」 등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사 및 음식문화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고,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음식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음식문화는 한 민족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보시어 우리 음식속에 담긴 자연에 대한 순리와 체험에서 익힌 합리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셨으며, 일본 오사카에 있는 『국립민족박물관』의 한국실 전시에도 많은 공헌을 하시어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시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매년 행하는 민족조사에 참여하시어 각 도의 향토음식과 각 지방의 식생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일본 동북지방의 음식문화연구”,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도작지역의 쌀음식 문화의 비교”, “일본 문화 원류로서의 비교 한국문화” 등 비교 문화적인 연구도 하시었다. 이렇듯 선생님은 가정학자이실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대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역사학자이시며 사람사는 모습을 읽어내시는 문화인류학자이시라고도 할 수 있다. 선생님의 한 평생 삶의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학문에 대한 자부심과 그 당당한 후학들에게 학문에 대한 열성의 불씨가 될 것이며, 축적된 경륜과 철학에서 비롯된 원숙하고 부끄러움 없는 생활자세는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다.

선생님은 영원히 우리들의 가슴속에 가정학 교육의 산 증인으로 남아계실 것이다.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큰 학문적 업적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효 지(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